

# 남도국악제 함평서 내일 '팡파르'

이틀간 함평문화체육관서 판소리 등 1,500명 경연  
농악 경연·퓨전판소리 공연·떡메치기 부대행사 다채

전남지역 국악예술발전과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2019 제 41회 남도국악제'가 27일부터 이틀간 함평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25일 함평군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에 따르면 '남도국악제'는 1979년부터 개최돼 매년 1,500여명의 참가자 경연과 대동한마당,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전남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국악예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제41회 남도국악제는 첫째마당(27일), 둘째마당(28일)로 나뉘며 첫째마당은 고수, 남도민요, 판소리, 무용부분 참가자 1,500여명의 경연이 진

행된다.

'고수 신인부'에는 12명, 고령부에는 6명이 참가해 4분씩 경연을 펼친다. 또 남도민요에는 12팀이 참여하고, 무용부분에는 14팀이 참가해 행사 분위기를 북돋운다.

이와 함께 둘째마당이 열리는 28일에는 도내 시·군 농악단 16팀이 사전행사를 가진데 이어 오전 10시 풍물제상 굿패마루팀의 신명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 농악부분 경연과 '박천을 퓨전 판소리- 토기이야기', 떡메치기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행사는 대동한마당과 함께 떡파할 예정 이다.



전남지역 국악예술 발전과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2019 제 41회 남도국악제'가 27일부터 함평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장면.

/한국국악협회 전남지회 제공

참가팀 가운데 종합대상에게는 전남도지사상이 수여되며, 개인 종합대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이 주어진다.

또 농악, 남도민요, 무용부분, 판소리, 고수 등 11개 부문에 걸쳐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시상될 예정이다.

한편, 제41회 남도국악제는 함평군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61-320-1776. /함평=윤예중 기자

## 나주 택시 기본요금 6년 만에 300원 ↑

내달 3일부터 적용...8km이상 운행 시 소폭 인하

나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00원 오른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도내 택시운임·요금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해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시(市) 단위 기본요금과 동일한 3,300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운행거리 7.5km까지는 현행요금보다 소폭 인상되지만, 7.5km구간 초과 운행 시에는 현행요금보다 인하된다.

기존 146m 당 160원이었던 거리는

임을 134m 당 140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km이하 주행 시 기존 35초 당 160원에서 32초 당 140원으로 일부 하향 조정된다.

심야할증(자정-오전 4시)은 기존과 동일한 20%이며,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20%에서 35%로 늘었다.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될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정·변경된 택시 요금은 5월3일부터 나주시 전체 택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 상사화 관광자원화·화훼산업 발전 맞손

영광·국립원에특작과학원 업무협약

영광군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상사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영광군청에서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영광군에 자생하는 상사화를 관광자원으로 한층 발전시키고 화훼·원예 산업의 발전과 지역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육종연구를 통한 경쟁력 높은 신품종 발굴로 구근 화훼류(나리·글라디올러스 등)의 국

산품종 보급율을 높이는 등 화훼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어 구근류인 상사화 연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상사화의 개화조절 및 대량증식, 육종에 관한 기술 구축' 업무협약을 통해 영광군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화훼류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정보를 공유한다. 또 상사화의 개화기 조절 기술연구를 통해 향후 영광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영광=곽승훈 기자

## 화순청소년문화의집 AR체험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제1회 4차 산업 체험 '증강현실로 즐기는 3D트리아트 뮤지엄 체험'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 청소년들은 여수시 돌산에 있는 예술랜드에서 증강현실(AR)로 구현한 다양한 3D트리아트를 즐겼다.

예술랜드의 국내 최대 테마형 3D트리아트 뮤지엄에서 AR를 체험하고 조각공원에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 청소년들은 청명한 바다와 어우러진 예술랜드에서 AR을 체험하고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4차 산업 시대의 진로에 관해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산책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순=서호영 기자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제1회 4차 산업 체험 '증강현실로 즐기는 3D트리아트 뮤지엄 체험'을 진행했다.

# 나주 혁신창업타운 조성 가속도

미르산업개발 협상대상자 선정 1,972억 규모 투자협약

KTX 나주역 일대에 나주시가 추진 중인 '나주 빛가람에너지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내 '혁신 창업타운' 조성을 위한 우선 사업시행 협상대상자로 ㈜미르산업개발을 선정하고, 1,97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생태계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문화·상업·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미르산업개발은 빛가람도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 전문 업체로, 오는 2023년까지 투자 선도지구 내 34만㎡(약 10만평) 규모의 '혁신 창업타운' 부지조성에 총 1,472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창업지원센터 건립에도 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컨벤션센터와 쇼핑몰, 복합주거 시설,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너지혁

신창업타운'은 민간투자를 통한 산업

/나주=염규동 기자

## 장성 '황금밥상' 메뉴 품평회 열려

'엘로우시티 장성'을 모티브로 개발한 '황금밥상' 메뉴 품평회가 열렸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10회에 걸쳐 관내 음식점 대표들과 함께 '황금밥상' 메뉴를 개발했다.

'황금밥상'은 현대인의 성인병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메뉴로,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다이어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이다.

황금밥상 메뉴는 돼지, 닭, 오리를 이용한 황금알 정식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도토리 들깨탕, 젊은 층을 겨냥한 게장 정식, 떡갈비 정식, 고등어 정식 등

으로 구성됐다. 또 축령산과 백양사에서 순두부 정식도 새롭게 준비했다.

장성군의 황금밥상 메뉴 개발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현재 장성호 주변인 미라단지를 중심으로 2차 황금밥상 개발을 계획 중이다.

2차 개발에서는 전남도 내수면시험장과 연계해 민물고기 요리 위주로 메뉴를 구성할 계획이다.

장어 정식, 메기찜 정식 등을 구상 중이며, 이외에도 오모가리탕 등 다양한 메뉴를 구성해 장성호 주변길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엘로우시티 장성'을 모티브로 개발한 '황금밥상' 메뉴 품평회가 열렸다. 유두석 장성군수와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함평 드림스타트 언어교실 운영

함평군은 오는 9월까지 언어능력이 부족한 아동 4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언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음 부정확, 말더

듬 등 의사소통 문제로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1대1 맞춤 교육, 부모 상담 등을 통해 언어 구사력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 화순기후·환경네트워크 저탄소 실천 캠페인

화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최근 기후변화와 주간에 맞아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고인돌 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화순기후·환경네트

워크 회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력 플러그 뽑기 ▲에코백 이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을 홍보했다. /화순=서호영 기자



### 무안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무안군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노인공익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치매파트너에 대한

이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치매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치매파트너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안내, 치매파트너 플러스 선정 및 치매극복 캠페인 활동 안내 등이 이뤄졌다. /무안=박주현 기자